

조구

조구(上宮, 위쪽 신사)는 우사 신궁의 거의 모든 의식과 기도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오진 천황(제15대 천황)을 신격화한 하치만 신과 오진 천황의 어머니인 진구 황후, 그리고 히메 대신이라 불리는 세 여신을 가장 중요한 제신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하치만 신은 국가와 황실의 수호신으로, 진구 황후는 순산의 여신으로 숭배되었으며 히메 대신은 항해의 안전을 지키는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사에서는 두 번 고개 숙여 절하고 두 번 박수를 친 후, 손을 모아 조용히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절을 하는 방식으로 예를 취합니다. 그러나 우사 신궁의 참배 예절은 조금 달라서 박수를 두 번이 아닌 네 번 칩니다. 또한 조구와 계구(下宮, 아래쪽 신사)에서는 참배객이 중앙에 자리한 신전 앞만이 아닌, 각 신들을 모신 3개의 신전 앞에서 기도하는 방식을 추천합니다.

조구에 있는 3개의 본전(本殿)은 우사 신궁에서 처음 시작된 하치만즈쿠리라는 건축 양식으로 지어졌습니다. 각 신전은 통로로 연결된 두 채의 각기 다른 건물처럼 보이지만, 2개의 지붕을 가진 하나의 건물입니다. 내부는 덮개가 달린 침대가 있는 안쪽의 큰 방과 왕좌가 갖춰진 바깥쪽의 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는 신들이 낮에는 바깥쪽의 큰 방에서 기도를 듣고 밤이 되면 안쪽 방으로 이동해 휴식을 취한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세 신전의 내부는 봉황 그림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일본 전국에 약 40,000곳의 하치만 신사가 존재하지만, 전통적인 목조 하치만즈쿠리 양식으로 지어진 신전은 10곳이 채 되지 않습니다.

조구 안에 자리한 3개의 작은 신사(가스가 신사, 호쿠신 신사, 스미요시 신사)는 각각 세 신전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하치만 신의 신전을 수호하는 가스가 신사에서는 예로부터 하치만 대신과 아마테라스오미카미를 보좌하는 신을 모시고 있습니다. 히메 대신의 신전을 수호하는 호쿠신 신사에서는 우사 신궁이 자리한 이 지역의 신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호쿠신 신사는 하치만즈쿠리 양식의 구조가 남아있는 귀중한 예이기도 합니다. 진구 황후의 신전을 수호하는 스미요시 신사에서는 진구 황후를 축복한 3명의 신을 모시고 있습니다. 이들 신사 외에도 조구의 벽을 따라 심어진 한 그루의 커다란 녹나무는 하치만 신의 신성한 자녀를 모신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구에서 최초로 하치만 신을 모신 신전은 725년에 지어졌지만, 현재 조구의 신전은 1859년부터 1861년에 재건된 것입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대규모의 수리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주홍빛의 기둥과 흰 벽, 노송나무 껍질로 엮은 지붕이 하늘과 주변의 나무들을 배경으로 특히 아름다운 모습을 연출합니다. 조구에 있는 3개의 신전은 국보로 지정되어 있으며 호쿠신 신사, 미나미추로몬 문(南中樓門), 사이다이몬 문(西大門)은 오이타현의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